

화학제품 수입물량 지수 5.7% 상승

한은, 2/4분기 상승세 이어 3/4분기 저점 ... 원유 수입량 3/4분기 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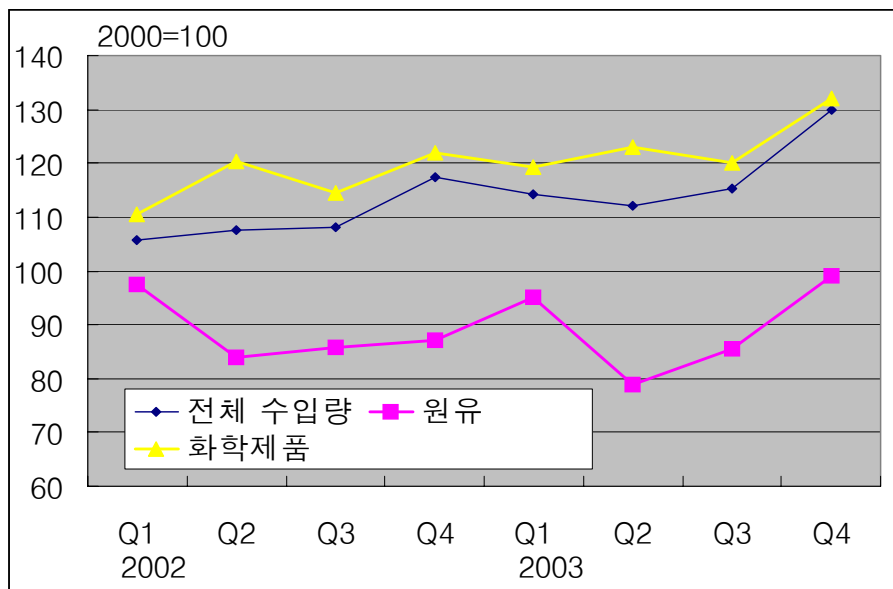
2003년 화학제품 수입물량지수가 123.6으로 전년대비 5.7% 상승했으나 2001-2002년 상승률 15.2%보다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3년 국내 화학제품 수입물량지수는 1/4분기 119.3에서 2/4분기 123.0으로 상승했으나 3/4분기 120.1로 낮아졌으며 4/4분기에는 다시 132.1로 올라섰다.

수입단가지수가 1/4분기 99.1에서 2/4분기 97.8로 잠시 주춤하다 3/4분기 97.3, 4/4분기 100.2로 상승세를 나타낸 것과 차이가 있다.

국제 원자재 가운데 수입비중이 높은 원유의 수입량은 1/4분기 95.2에서 2/4분기 78.9, 3/4분기 85.5, 4/4분기 99.0으로 변동해 2/4분기에 가장 낮았으며, 2003년 전체로는 89.6으로 2002년 88.6에 비해 1.1%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수입물량지수 등락률 추이



한편, 2003년 국내 수입물량지수는 자본재(21.8%)의 신장세가 확대되고 소비재(11.1%)와 원자재(2.1%)도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전년대비 7.3% 늘어나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원자재는 경공업원료(-6.8%)가 줄었으나 원유(1.1%)의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비철금속(11.9%), 철강재(8.3%), 화학제품 등의 기초원자재 수입도 늘어 2002년보다 2.1% 증가했다.

4/4분기에는 원유 도입량 증가 등으로 원자재(9.3%) 수입의 신장세가 확대되고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3/4분기보다 12.7%, 전년동기대비로는 10.5% 증가했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4/23>